

'SM 어벤져스' 슈퍼엠(SuperM), K팝에 '영웅서사' 심다

“슈퍼엠(SuperM)을 위해 곡을 쓰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슈퍼엠은 여러 아이돌 그룹이 뭉쳐서 탄생한 슈퍼팀인 만큼, 각 그룹을 대변해야 하지만 새로운 팀으로서 새로운 매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프로듀싱팀 '문샤인'(루드빅·조나단)은 SM엔터테인먼트의 연합그룹 '슈퍼엠'의 음악적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축약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난 25일 슈퍼엠이 발표한 첫 번째 정규앨범 '슈퍼 원(Super One)'의 타이틀곡 '원(One)'이다.

이번 앨범 수록곡 '인피니티(Infinity)'와 '몬스터(Monster)'를 합쳐서 만든 하이브리드 리믹스(Hybrid Remix) 곡이다.

'인피니티'와 '몬스터'는 각각 타이틀곡으로 내세워도 손색이 없다. '인피니티'는 웅장한 금관악기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장엄한 도입부가 인상적이다. 트랩(Trap)과 UK 드릴(Drill) 장르를 슈퍼엠 스타일로 풀어냈다. '몬스터'는 괴물이 연상되는 모티브의 디스토션된 퍼커시브 베이스 리프의 에너지가 강렬하다.

두 곡의 메시지를 '원'에 잘 융화시켰다. '인피니티'의 '무한대로 나아가겠다'는 자신만만한 포부, '괴물'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서사가 '원'에서 합쳐진다. '어려움을 두려움 없이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된다.

슈퍼엠 멤버 태민은 이미 자신이 속한 원 그룹 '샤이니'가 2013년 발표한 '셜록'으로 하이브리드 곡을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하나의 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이성적인 단서 '클루(Cue)'와 감성적인 직감이 담긴 '노트(Note)'를 합쳐 '셜록'이 만들어졌다.

태민은 지난 25일 '슈퍼원' 발매 기념 온라인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셜록 때 노하우를 깨우친 덕분에 이번 작업이 더 재미가 있었다”면서 “원도 좋지만, '몬스터'와 '인피니티'도 각각 타이틀곡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했다.

◇K팝에 심어진 '영웅서사'

이번 슈퍼엠의 앨범 '슈퍼원'의 메시지는 마

블 스튜디오 '어벤져스' 시리즈의 영웅서사처럼 전달된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슈퍼엠은 샤이니 태민, '엑소'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를 비롯 중국 그룹 '웨이션브이' 루카스와 텐 등 7명의 멤버로 구성된 연합팀이다.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미국 캐피톨 뮤직 그룹(CMG)과 손잡고 작년 10월 론칭했는데 데뷔 앨범 '슈퍼엠'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블 '동방신기'의 팀명에는 '동쪽에서 신이 일어난다'란 뜻을 담았다. 지난 2012년 데뷔한 엑소는 순간이동, 불, 빛, 결빙 등 각 멤버마다 초능력을 부여했다.

이번 슈퍼엠을 통해서 SM 식 K팝의 영웅 서사가 외부로 확장하는 데 이르렀다. 세계적인 캐릭터 기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마블(MARVEL)과 특별한 콜라보레이션한 것이다.

슈퍼엠은 이번 앨범 '슈퍼 원'을 발매하면서 마블과 협업도 발표, 슈퍼엠 캐릭터와 '어벤져스'로 대표되는 마블 영화 속 히어로 캐릭터가 어우러진 한정판 패키지 컬렉션을 지난 25일 미국에서 먼저 공개했다.

이번 슈퍼엠과 마블의 머천다이즈 콜라보레이션은 SM과 마블의 지속적인 협업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젝트다. 두 회사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블의 저작권 부문 SVP(Senior vice president·상무) 폴 기터(Paul Gitter)는 “마블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캐릭터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팬들과 함께 매우 영향력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임을 증명해왔다. 마블 유니버스는 SM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한 다양한 머천다이즈와 콘텐츠를 통해 멋지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K팝 문화로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수 SM 공동 대표는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서울국제뮤직페어(뮤콘)의 기조연설'에서 “마블의 모회사인 디즈니가 자신들의 IP 제국을 이뤘듯, K팝이 이 시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제국을 이룰, 음악의 첫 번째 장르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본질은 음악과 메시지

SM이 이번 슈퍼엠의 첫 정규 앨범 '슈퍼원'



을 보여주는 행보는 화려하다. 그런데 이런 행보가 가능한 이유는 탄탄한 음악과 메시지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원', '인피니티', '몬스터'를 비롯 총 15곡이 실렸는데 모든 수록곡의 완성도가 높다.

덱 사운드의 레게 리듬 위에 슈퍼엠 멤버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섞인 '위시 유 웨어 히어(Wish You Were Here)', 경쾌한 트로피컬 장르의 '빅 찬스(Big Chance)', 멤버 마크가 직접 작곡과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강렬한 브레이크비트 장르의 '헌드레드(100)', 맹수의 그렁거리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신시사이저와 호랑이의 움직임 형상화한 안무가 잘 어우러진 '호랑이(Tiger Inside)'가 예다.

섹시하고 도발적인 '드립(Drip)', 리드미컬한 팝-댄스 곡 '라인 업(Line 'Em Up)', 반전이 있는 트랩 기반의 힙합 '댄저러스 우먼(Dangerous Woman)', 멤버들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스텝 업(Step Up)', 슬로우 잼 넘버 '소롱(So Long)'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울림과 희망을 주는 곡들을 몰아박아 한다.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유연한 플로우의 랩과 따뜻한 보컬로 풀어낸 가스펠 힙합 빅 발라드인 '베터 데이즈(Better Days)', 지금까지 없었던 언택트(연

택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대면 서비스 방식) 방식으로 뭉쳐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투게더 앳 홈(Together At Home)', 지난 4월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주최한 온라인 자선 콘서트 '원 월드 :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에서 선보인 곡으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의 일렉트로 팝 곡 '위드 유(With You)'가 그것이다.

백현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데뷔 앨범으로 '빌보드 200' 1위라는 성과를 얻어 사실 많이 부담됐어요”라면서 “이번 앨범이 어려운 시기(코로나19)에 음악을 통해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슈퍼엠은 지난 4월26일 SM이 네이버와 손잡고 선보인 세계 최초 유료 온라인 공연 '비온드 라이브(Beyond LIVE)'의 첫 주인공이기도 하다.

백현은 '비온드 라이브' 공연에 대해 “팬들 각자의 집에서 응원 받는 느낌이었다”면서 “시간적인 한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지역과 팬들까지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여겼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코로나19)가 빨리 좋아져서 오프라인으로 팬들과 눈빛을 교환하고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고 바랐다.

'K팝 슈퍼 루키' 에이티즈, 내달 24일 온라인 콘서트

데뷔 2주년 기념

떠오르는 K팝 그룹 '에이티즈(ATEEZ)'가 데뷔 2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콘서트를 연다.

27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티즈는 데뷔 2주년 당일인 오는 10월 24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온라인 콘서트 '에이티즈 세컨드 애니버서리 콘서트 : 포트 오브 콜(ATEEZ 2ND ANNIVERSARY CONCERT : PORT OF CALL)'을 생중계한다.

지난 2018년 10월 24일 데뷔한 에이티즈는 데뷔 때부터 '퍼포먼스돌'이라 불렸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지도를 쌓기 시작한 그룹이다. 작년부터 월드 투어를 돌았다.

차세대 K팝 그룹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난 앨범 활동 당시, 세계 각국 15개 도시 아레나 투어를 준비했고 연속 매진행렬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팬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미뤄졌다.

지난 7월 발매한 앨범 '제로 : 피버 파트 1(ZERO : FEVER part.1)'을 통해 성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을 들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국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저민이 차세대 K팝 그룹으로 꼽고 있다.

특히 최근 트위터에서 공개한 '라이징 K팝 아티스트' 2위에 랭크됐다. 트렌드 보고서인 '트위터 프롬 홈(Twitter From Home)'에서는 '방탄소년단'과 카니에 웨스트, 비욘세 등의 뒤를 이어 8위를 차지했다.

또 최근 호주 '2020 폴리스이드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위촉,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에 나

서는 등 사회적인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그간 쌓은 공력을 모두 쏟아낸다는 계획이다.

티켓은 오는 29일부터 예스24(YES24), 마이 뮤직 테이스트(My Music Taste), 스키야키(SKIYAKI)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얼리버드와 VOD 포함 상품 등 다양한 티켓이 오픈된다. 에이티즈의 공식 팬클럽인 '에이티니(ATINY)' 1기에게는 포도 초대장 등 특전이 제공된다.

용준형, 현역→사회복무요원 편입...“무릎 연골 손상”

그룹 '하이라이트' 출신 가수 용준형이 육군 현역에서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25일 소속사 아라운드어스에 따르면 용준형은 작년 4월2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후 훈련 과정에서 좌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복무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군에서 법규에 의한 심사절차를 거쳤다. 현역복무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고

현역병 복무 중 최종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아라운드어스는 “현재는 소속이 기관돼 지난 6월15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용준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일까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준형은 지난 2009년 6인 그룹 '비스트'로 데뷔했다. 2016년 장현승이 탈퇴하면서 비스트는 5인으로 재편됐다. 이후 멤버들은

기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독립 레이블 아라운드어스를 차리고 팀 이름도 하이라이트로 변경했다.

그런데 용준형은 지난 2015년 말 당시 정준영이 공유했던 불법 동영상을 본 사실이 있다고 작년 3월 인정한 뒤 팀을 탈퇴했다. 당시 용준형은 “법범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만 생각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제지하지 못한 점 또한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라디오쇼' 박명수, GD에 러브콜 “재회 기대”

개그맨 박명수가 그룹 '빅뱅' 지드래곤에게 다시 한 번 음악 작업을 하고 싶다는 러브콜을 보냈다.

박명수는 26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자신과 지드래곤이 MBC TV 예능물 '무한도전'을 통해 함께 작업한 '바람났어'가 흘러나오자 “지드래곤, 다시 하

자”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연락처는 모른다. 우리 동네에 사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후배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회하길 기대해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뉴스스

'리블리즈' 비대면 콘서트, KT 단독 글로벌 생중계

내달 18일 오후 3시 진행

KT가 걸그룹 '리블리즈'의 비대면 콘서트를 울림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공동 제작해 전 세계에 독점 생중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Lovelyz ONTACT CONCERT-Deep Forest(리블리즈 온택트 콘서트-딥 포레스트)'는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은 그대로 가져가되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살려 팬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양방향 콘서트로 진행된다.

지난 1일 미니 7집 'UNFORGETTABLE'로 돌아온 리블리즈가 약 1년 2개월만에 여는 단독 콘서트다. 국내에서는 KT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Sezn(시즌)과 IPTV 서비스 올레 tv에서 단독 생중계된다. 해외에서는 제휴사 MyMusicTaste(마이뮤직테이스트)의 'MMT 라이브' 페이지를 통해 콘서트를 만나볼 수 있다. 대안에서는 통신사 FET(FarEastTone)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friDay Video에서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오는 9월 25일부터 공연 당일인 10월 18일까지 3만 3000원에 예약 판매를 진행했다.

예약 구매한 고객들은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도 Sezn(시즌)과 올레 tv에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또 Sezn(시즌)에서는 직접 콘서트 현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콘서트 스페셜 티켓과 리블리즈의 포토카드를 실물로 제공하는 스페셜 상품도 마련했다.

멤버들의 친필 사인이 포함된 플라로이드를 비롯해 KT의 영상통화 서비스 'Narle'을 통해 멤버들과 직접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VIP 상품도 Sezn(시즌) 앱에서만 단독 판매된다.